‘사자의 서’, 현대무용으로 만나다

국립무용단 ‘사자의 서’ 공연
9월 17~20일 해오름극장서
사후 49일 여정, 춤으로 표현
초연 당시 매진…완성도 높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무용단 ‘사자의 서’ 공연 한 장면.

티베트 불교의 〈사자의 서〉를 현대무용으로 해석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국립무용단(예술감독 겸 단장 김종덕)은 ‘사자(死者)의 서(書)’를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한다. ‘사자의 서’는 2024년 초연 당시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지적이고 감각적인 춤의 경전’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매진을 기록했던 작품이다. 이후 관객들의 꾸준한 재공연 요청이 있어 왔고 ‘2025-2026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의 첫 공연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사자의 서’는 8세기 티베트 불교 성인 파드마삼바바가 쓴 수행지침서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영감을 받아 망자가 죽음 이후 49일간 겪는 내세의 여정을 강렬한 춤과 에너지로 그려 낸 작품이다. 안무는 김종덕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이 맡았으며 삶과 죽음,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무대 미학으로 풀어낸다.

작품은 총 3장으로 구성돼 죽음 후 망자가 겪는 49일의 여정을 단계적으로 보여 준다. 1장 ‘의식의 바다’는 죽음을 애도하는 제의로 시작, 저승사자가 등장해 망자를 사후세계로 인도한다. 죽음의 강을 건너며 춤추는 망자의 독무와 죽음을 애도하는 살아 있는 자들의 군무로 강렬한 대비를 보여 준다.

2장은 ‘상념의 바다’로, 망자의 지난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소년기부터 장년기까지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삶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 회한과 체념 등 감정의 굴곡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마지막 3장 ‘고요의 바다’에서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반복 움직임을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사후세계가 연결된다는 성찰과 위로를 전한다.

이번 재공연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흐름을 보다 압축적으로 재구성하고, 캐스팅에도 변화를 줬다. 초연 당시 2인의 남성 무용수가 맡았던 망자 역은 이번에 성별 구분 없이 5인의 국립무용단 주역 무용수가 번갈아 맡아, 인물의 다층적 해석과 신체 표현의 다양성을 더한다. 초연 멤버 조용진을 비롯해 관록의 장현수·김미애, 강렬한 에너지를 지닌 박소영·이태웅이 출연해 각기 다른 색채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자의 서〉 음악은 김재덕 씨와 황진아 씨가 맡았다. 직접 춤을 추며 음악을 만드는 안무가인 김재덕 씨가 1·2장을, 장르를 넘나들며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문고 연주자 황진아 씨가 3장의 음악을 맡았다. 변형된 국악기 주법과 사운드, 앰비언트 사운드를 덧입히는 등의 시도로 현대적 감각을 더했다.

여기에 더해 이태섭 무대디자이너와 장석영 조명디자이너, 황정남 영상디자이너, 노현주 의상디자이너는 시공간을 초월한 무대 연출을 선보인다.

김종덕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은 “죽음 이후의 여정을 그린 이번 작품은 49재, 3년상 등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은 우리나라 전통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며 “작품을 통해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원동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권태와 싫증에서 벗어나기

⑨ 무피염



마오쩌둥은 임종 직전 의사의 응급처치를 받으면서도 홍매의 〈용재수필〉을 읽을 만큼 지독한 독서가였다. 그의 독서법은 ‘삼복사온(三復四溫)’, 곧 세 번 읽고 네 번 되새기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은 연설이나 대화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되었다. 그러나 평생을 독서에 몰두한 그도 책 읽기에 싫증을 느끼지 않았을까? 불후의 명곡도 반복해서 들으면 피로해지듯, 인간은 되풀이되는 일 속에서 재미와 의미를 잃기 마련이다.

권태와 싫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깊은 가치와 의미가 담긴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기 쉽다. 그래서 경전은 서원을 실천할 때 지치거나 싫증내지 말라고 가르친다. 〈화엄경〉 ‘이세간품’은 십종 무피염(無疲厭)을 말한다.

“불자야, 보살은 열 가지 싫증 없는 마음을 내야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일체제불을 공양하는 일, 내지 선지식을 친근하는 일, 일체법을 구하는 일, 정법을 듣는 일, 정법을 펼치는 일,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일, 불법을 관찰 사유하는 일, 중생을 깨달음에 들게 하는 일, 낱낱의 세계에서 불가설 불가설의 겁이 지나도록 보살행을 행하는 일에 싫증을 내지 않는다.”

또한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 보현보살은 10대 서원을 맺으며 다짐한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예경도 다하겠지만, 중생계와 중생의 업과 중생의 번뇌가 다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예경도 쉬지 않나니, 이런 나의 원이 마음마음에 계속 이어져 쉼이 없으며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삼업이 피로해하거나 싫증을 내지 않겠나이다.”

사람들은 즐거운 일,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 종교 수행조차 처음에는 의미와 열정을 품지만 시간이 지나면 권태를 느끼고 형식적으로 하거나 중단한다. 문학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속성이 드러난다.

카프카의 〈변신〉,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 보들레르의 〈악의 꽃〉은 권태를 인간의 병폐로 다루었다. 반면 니체는 권태를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극복을 이끄는 창조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좋은 일을 하면 과정과 결과가 순탄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하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구니가 기승을 부린다는 도고마성(道高魔盛)의 말처럼, 권태와 싫증은 가장 강력한 마구니일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하면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무심하고 즐겁게 과정을 즐길 일이다. 그래야 비로소 무피염의 보살이 될 수 있다.

〈화순 불암사 주지〉

해외불교는 지금

파키스탄 內 불교 공동체 사회적 차별로 곤경 처해

인도·미얀마 외신 등 집중 보도
소수 종교 신자 대한 차별 심화
사회·경제적 배제…국가는 묵인
수천 불교도, 이슬람교로 위장

한때 간다라 문화의 요람이었던 파키스탄에서 이제 불교는 의도적인 방치와 문화적 차별에 의한 쇠퇴의 증거로 꼽히고 있다. 8월 25일 인도의 ‘인디아 뉴잉글랜드 뉴스’와 미얀마의 ‘밋지마 뉴스’의 외신은 현재 파키스탄의 불교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소외받으며 곤경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밋지마 뉴스는 선리(Sun Lee)라는 필명의 연구자가 발표한 현지 조사보고서를 인용하여 “2025년 현재, 파키스탄 불교도들의 곤경과 불교문화유산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파키스탄 사회에서 그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며 소외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 준다”고 전했다. 또 보고서는 “현재 미약하게 남아 있는 파키스탄 불교도들에겐 현재 그들을 위한 종교적 공간이나 존중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디아 뉴잉글랜드 뉴스는 “파키스탄 북부를 중심으로 한 간다라 문명은 한때 탁실라, 스와트, 페샤와르 일대에 불교승원들과 불탑 조성이 번성했던 중심지였다”면서 “그러나 황금기의 유산들은 이민족의 정복, 종교적 변혁, 그리고 노골적인 무시와 방치로 해체되고 있다. 오늘날 이 유적들은 살아 있는 신앙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고고학적 유물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현재 파키스탄의 불교도는 수천 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이슬람교도로 위장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 외에도 파키스탄 내에선 힌두교도, 기독교도, 시크교 등 소수 종교인들이 차별과 박해를 받으며 자신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선리의 보고서는 “인도 국경지역에 다수 포진한 불교도 가족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신앙을 숨기고 있다. 불교도임을 공개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 배제의 위험에 처하며, 제한된 기회조차 잃게 된다”고 전했다.

실제 불교도가 다수 거주했던 잠무-카슈미르 지역과 구 라다크 지역의 경우 사찰들이 남아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예불과 참배는 물론 보수공사 등도 금지되어 의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아 뉴잉글랜드 뉴스는 파키스탄 불교도들과 종교적 성지들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문화유산 보존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광범위한 불관용의 징후라고 지적했다.

선리의 보고서는 현재 현지 불교도들의 곤경은 파키스탄 내 다른 소외 계층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현지 불교 정체성의 약화는 다원주의를 훼손하고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민족 정체성을 고착시켜 타 종교와 공동체에 대한 광범위한 배제의 한 줄기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파키스탄 스와트계곡에 있는 일묵다라 스투파. 파키스탄은 고대 간다라불교의 중심지였다. 사진=위키피디아



팔정도와 간화선의 수행 방법 중도로 융합!
현대인을 위한 간화선
간화선의 수행 방법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우리 삶을 실천과 자비로 이끌고, 이를 통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한다.
오용석 저/신국판/328쪽/값 23,000원

부처님의 교법과 수행의 핵심을 한 권에!
시골 농부의 마음공부
수행과 농사일을 병행하며 살아가는 귀촌 농부가 그동안 공부하고 닦은 바, 즉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과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김일문 지음/국판/양장/256쪽/값 17,000원

동화로 읽는 보왕삼매론!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고 경책해야 할 10가지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보왕삼매론」을 어린이들이 생각해볼 수 있게 재미있는 동화로 각색하였다.
한상희 글, 용정운 그림/사륙배판 변형/108쪽/값 12,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